

“올 하반기 경제 구조개혁 집중”

문 대통령, 수보회의서
“과감한 규제혁파
혁신성장 가속화 주력
최장노동 문제 적극 대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금년 하반기에도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송 지사, 국가예산 확보 위한 기재부 방문
송하진 도지사는 23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유윤철 예산실장 및 예산과 관련한 주요 핵심인사와 면담을 갖고 기재부 단계에서 증액해야 할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하는 등 2019년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시각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 세계(EITC)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시기도 대폭 앞당겼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며 “다행스럽게 작년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외에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것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

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소통에도 적극 나서겠다.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계와 직접 만나겠다”며 “만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기존 경제 철학을 강조한 것은 오랜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이 불평등을 확대했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려 고공없는 성장이 계속됐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경제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 없는 노릇”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에 대

항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정책 가운데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지역기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역기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기업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다.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 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지역기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들이 자기 노

예술로 문화관광 공간재창조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로 문화터’ 본격 추진
장수 의암공원 내 노후화된 벽면 아트담장 조성
12종 픽토그램·텍스트 이미지 활용 조형물 제작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예술을 통한 문화관광 공간재창조사업 ‘예술로 문화터’를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도내 지자체 대상 예술로 문화터 사업대상지 공모를 추진한 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넓은 공간으로 문화 활동을 통한 문화관광 조성 효과가 기대된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장수군 의암공원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내 예술단체에서 제시한 픽토그램 활용 시각 예술작업이 장수군의 의암공원에 오는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추진 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장수군 의암공원 내 노후로 방치된 약 120m의 경사지 벽면을 대상으로 기존 벽화작업과는 달리 철판을 사용한 입체 조형물을 설치하여 안정감과 입체감을 표현하고 그 위에 페인팅 작업을 추가하여 컬러감을 더 할 예정이다.

또한 총 12종의 판형 조형물은 장수군의 지역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주는 픽토그램과 텍스트 이미지로 디자인하여 누구나 친숙하게 접

근할 수 있어 의암공원의 대표적인 포토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화관광 공간재창조사업 ‘예술로 문화터’는 역사·문화적으로 활용가치가 잠재성은 있으나 유휴공간화 되어가고 있는 공간들을 찾아 예술작업·예술콘텐츠를 통해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016년에는 입실 치즈공장 일원에 치즈 스토리텔링벽화를 제작하였고 부안군 격포항에는 바다트리아트 포토존을 조성하고 2017년에는 군산 3.1운동 기념관 일원을 대상으로 만세형상의 석조 조형물과 무궁화 타임벽화 7점을 제작하여 지역자원 활용 예술을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가치가 발견되고 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예술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장수군의 대표축제인 장수한우랑사과감 축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보다 많은 지역민이 예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호철 기자

문 대통령 “노회찬, 정치 폭 확장에 기여... 비통한 심정”

마린원 순직 장병들에게 애도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사망과 관련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주 안타까운 비보가 전해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노 의원은 당을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에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사회를 보다 진보적 사회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을 해주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진보 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주었다고 생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앞서 ‘마린원’ 헬기 추락사고 순직장병을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한다”며 “한편으로 아주 사막한 우리 정치관에서 말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면에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 의원의 사망에 대해 깊이 애도한다”면서 “뿐만 아니라 유족들과 정의당에도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원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에 대해서도 애도의 뜻을 다시 한 번 표했다. 순직자들에 대한 10초 간의 묵념으로 수보회의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마린원 헬기 사고 순직자들의 영결식이 있었다”며 “영결식에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다.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내달부터 군산시민 대상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박이석)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과정은 창업 첫걸음 교육 과정, 성공창업 실천과정, 희망 재창업 과정, 업종전환 컨설팅 과정 등 총 4과정으로 운영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또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18년도 매출이 발생한 4명 내외의 창업자에게는 창업 축하금을 지원하며 제조업 창업의 경우 Maker’s 경진대회를 통해 시제품 제작비용(5백만원 한도 내)을 지원한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450-1315~7) 및 홈페이지(www.jvada.or.kr)를 통해 상담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박이석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장은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및 창업희망자들이 창업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 원활한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450-1301~3)에서는 창업 교육과정 외에도 8월부터 한식조리기능사 과정, 유류 보육교사 재취업 과정, 위그선 정비사 및 운항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배·중장비 등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북지역 무더위 기승 전주 한 음식점에 ‘정진’

전북지역에 무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전력 과잉 사용으로 음식점에 전기가 끊기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지난 10일부터 14일째 폭염특보가 이어졌다.

전북에서는 지난 16일 제초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사망하는 등 올해 들어 4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또 닭과 돼지 등 가축 37만5946마리가 폐사했다. 닭 34만3356마리, 오리 3만1000마리, 돼지 1620마리 등이다.

무더위에 전력 수요량이 늘어나며 정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23일 오후 전주 금암동의 한 음식점은 손님이 가장 많이 찾는 점심시간 갑자기 전기가 끊겨 소란을 빚기도 했다. /김정진 기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전

내달 1일 익산 신청사로 단계적 마무리... 준공 행사 열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류갑희)은 오는 8월 1일 익산 신청사로 단계적 이전을 마무리하고, 준공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홍보실, 감사실, 총괄본부장 등의 조직으로 300여명 임직원이 이전 근무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들과 1,000여 명의 전북지역 주민을 초청해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의 함께 다짐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이날 주민초청 상생화합한마당은 연예인 축하공연 및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연출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위촉

장영수 장수군수... 지역발전 가속화 기대

장영수 장수군수가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며 4000억 예산 확보 및 지역발전 가속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17일 위원회 산하 6개 전문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목표에 ‘지역’을 포함한 최초의 정부라는 사실을 강조함과 동시에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장을 받은 장 군수는 이미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바 있지만, 위촉식 연기로 인해 그간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내정자 신분이었다.

때문에 지난 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장수지역 공천 결과에 암시를 품은 일부 후보자 지지 세력들은 문자 발송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는

비방을 펼쳤고, 장 군수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한편, 이번 위촉으로 군민소득 향상과 세대별 맞춤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장 군수의 지역 발전 방안인 ‘힐찬 장수 프로젝트’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장수 지역 7읍면의 상생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이 현실화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수 군민들도 이번 자문위원 위촉 패거리를 환영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등 응원과 잇따라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 A씨는 “장 군수 취임 이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발전적 변화의 물결이 느껴진다”며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위촉 소감으로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4000억 예산확보, 힐찬 장수건설만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의료원 이사 후보자 모집... 모집인원은 여성 2명

진안군은 23일 진안군의료원에서 의료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능력 있는 이사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진안군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사 모집 및 공고방법, 심사방

법 등을 결정했다. 접수는 내달 2일까지로 위원회는 이사후보 응모자의 주요 경력 등에 대해 2차 회의를 열고 심사하기로 했다.

모집인원은 여성 2명이다. /진안=우태만 기자